



# 충성대신본

## 도약적 변혁을 추진하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명문사관학교'



###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학술세미나 개최'

본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다양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한해 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를 더욱 빛내는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충성대 학술 및 리더십 세미나 개최



▲ '충성대 학술 및 리더십 세미나'에서 장달수 학교장 (첫째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관학교 교육방향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2019년 충성대 학술 및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KAIST 부총장 이광형 교수를 비롯하여 군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석학들과 리더십 전문가, 인근 대학의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학교의 교수·교관 및 리더십 관계자, 사관생도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KAIST 부총장 이광형 교수의 대주제 발표에 이어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은 충성대 학술세미나로서 박경환 명예 교수의 진행으로 "육군 그리고 사관학교의 정체성", "4차 산업혁명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관학교 교육방향"에 대해 토의되었으며, 2세션은 리더십 세미나로서 배상희 국제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지휘관의 리더십(미군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및 리더십"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군과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열띤 토론에 임하였는데, 윤상철 길랩 앤 컴퍼니 대표와 홍성국 헤인리서치대

표가 민간 차원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방향과 리더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한미군 소속의 미 해병대 캠프 무적 지휘관 토마스 우드 대령이 미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하여 발제를 해주어 우리 보다 앞서 첨단과학군을 이끌고 있는 미군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AI, 빅데이터, 로봇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창의적이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리더십을 겸비한 정예사관생도 양성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참석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육군3사관학

교의 교육체계 발전과 리더십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사관생도 박주찬(3학년 56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덕목과 정예장교로서 지녀야 할 역량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남은 생도생활 동안 열심히 탐구하고 문무단련에 힘써서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부 이병길 환경정책장교, 광운대학교 장윤영 교수, 군수사령부 강재구 대령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국 군 사격장 친환경 관리 및 기술개발' 주제 발표에는 가천대학교 배범한 교수, 법무법인 율촌 김도형 전문위원, 육군본부 정작부 김명순 교육훈련지원과장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해 장병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친화적 병영'을 조성하고 국민들

#### 제2회 군 환경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2회 군 환경정책발전 토론회'에서 육군3사관학교 군환경연구소 조석희 정책실장을 비롯한 토론회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군 환경정책 발전 토론회'를 민홍철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환경부, 대외 환경전문기관, 국방부 및 육·해·공군 환경관계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소장 장달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지상작전사령부 송상화 원사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사격장 관리 및 법제 개선 방안'과 '외국 군 사격장 친환경 관리 및 기술개발'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군 토양 오염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 법령 개선 등 육군의 환경 정책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친환경적인 사격장 관리 및 법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는 육군3사관학교 군환경연구소 조석희 정책실장, 육군

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민·관·군이 뜻을 모으고, 산·학·연 유관기관 간의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주간 고성진

**지면 안내**

- 02 학교소식 | 2019년 학교를 빛낸 연말초빙강연
- 03 학교소식 | 前 함참의장 이순진장군 초빙강연
- 04 기획취재 | 삼모모터스(주) 이재하 회장
- 05 생도광장 | 훈육대 소개·생도 앙케이트
- 07 오피니언 | 시설·충성대 칼럼
- 10 교양 | 건강상식·명문가를 찾아서
- 11 동문소식 | 2019 정기 정군인사
- 12 기타 | 발전재단 소식



### 2019년 학교를 빛낸 연말 초빙강연

주무관 이경희



▲이철우 경북도지사(11. 11) '청년사관생도 조국의 미래'



▲유난희 쇼핑호스트(11. 29) '생도들에게 꿈과희망을 주는메시지'



▲관점디자이너박옹후 대표(12. 13)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를 바꾸라'



▲前시격국가대표 진종오(12. 17) '나를 이기는습관(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 제39대 생도대장 준장 김호복 장군 취임식

지난 12월 20일 학교장 주관 하에 제39대 생도대장 취임식이 충성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한 김호복 준장은 모교 출신(3사 27기)으로서, 지난 1990년 임관한 이래,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주요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였으며, 최근에는 52사단 210연대장, 3군단 작전처장, 6군단 참모장 등의 중책을 훌륭히 수행한 장군이다.

특히, 김호복 장군은 아전경험이 풍부하

고 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에 능통한 군사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인품이 훌륭하여 상·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덕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제38대 전임 생도대장 고창준 소장은 지난 11월 8일에 발표된 2019년 하반기 정기 장군진급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하여 같은 달 20일 충청북도의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제37보병사단장으로 취임했다.

55기기자생도 정용진



## 임슬기 생도, 3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쌀 기부



▲ 지역 주민들을 위해 3년 동안 쌀 80포대를 기부한 56기 임슬기 사관생도

본교 임슬기 사관생도(56기)가 지난 9일, 영천 서부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쌀 10kg 30포(75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서부동에 살아온 임슬기 생도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17년부터 동생들과 함께 봉어빵 장사를 통해 번 수익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2017년도에는 쌀 10kg 20포, 2018년도에는 쌀 10kg 30포를 기부하였으며, 올해까지 쌀 80포(200만원 상당)를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기부한 쌀 30포는 임슬기 생도가 월급을 조금씩 모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경로당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임슬기 사관생도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관생도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군사영어 강연

육군3사관학교-JFKN어학연구소, 외국어 교육 협약 체결 및 초빙강연 시행

본교는 지난 11월 21일, JFKN어학연구소와 글로벌 어학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교육 협약을 계기로 향후 원활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영어 학습자료 및 시설·인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JFKN 측이 제공하는 20개 강좌로 구성된 '안보영어 강의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부대는 주재현 JFKN 어학연구소장 초청강연도 함께 진행했다. 주 소장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강연하면서 연합작전시 한미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실시간 뉴스를 통한 효율적 학습 방법도 소개했다. 주 소장은 "영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이라며 영어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영어 학습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대위 이지수



▲ 교육 협약식에 참가한 학교장(좌측 4번째), JFKN 어학연구소 주재현 원장(우측 4번째) 등 주요 직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前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초빙강연

지난 11월 1일 본교에서는 사관생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前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을 모시고 초빙강연을 실시했다.

이순진 장군은 1977년 3사 14기로 입관한 후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였으며, 장군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육군부사관학교장, 제2보병사단장, 수도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역임하고 2015년 9월 3사 출신 최초로 합동참모의장이 되었다. 또한, 강력한 대비태세를 완비함과 동시에 군사외교로 동맹의 힘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환수의 토대를 만드는 등 국가안보를 다지는데 크게 공헌했다.

특히,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대인춘풍 자기추상(對人春風 自己秋霜)을 삶의 신조

로 삼아 무엇보다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부하와 동료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가슴 따뜻한 리더, 올바른 인성과 신념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 부하들과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생도들이여, 꿈과 희망을 가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관생도시절부터 합참의장이 되기까지의 인생 여정과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 생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순진 장군은 전역한 이후에도 각종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학교와 동문을 빛내고 있다.

주무관 김민수



▲ 이순진 장군이 강연 후 학교장(소장 장달수) 및 사관생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혹한에 더욱 뜨거운 충성 동계군사훈련 준비

본교는 오는 1월부터 시작되는 충성 동계 및 기초군사훈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충성 동계군사훈련은 3학년 2주, 4학년 5주간 시행되며, 3학년은 분대전투와 장비 조작 훈련 등을 통해 지휘능력을 배양하고 4학년은 병과소개,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임관 전 장교로서의 소양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충성 동계군사훈련 준비를 위해 군사훈련처는 훈련장을 정비해 최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조교 능력 향상을 위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조교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조교의 능력이 생도 군사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교 집체교육 간에는 과목별 교관에 의한 핵심강의와 시나리오 숙지, 수준평가, 행동화 숙달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 특히, 4학년 생도들은 임관 전 교육을 통해 즉각 소대장 임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 과목을 연출하고, 핵심과제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성 동계군사훈련 간 안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교관들은 사전에 충분한 훈련장 점검을 통해 안전에 위배된 요소를 제거하고, 훈련 간에는 기상과 기온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추운 날씨에 훈련하는 생도들을 위해 방한

대책 강구를 준비하고 있다. 생도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술노트를 작성하거나 군사학 과목 예습을 통해 지휘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 꾸준한 체력관리를 통해 동계군사훈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충성 동계군사훈련 준비와 더불어, 57기 신입생도의 충성 기초군사훈련 준비도 병행됐다. 충성 기초군사훈련은 2020년에 입학할 57기 예비생도들이 기초적인 군사지식을 숙지하고, 기본 전투기술을 이해하며 군인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군인기본 자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기본 전투기술은 물론, 정신전력 교육과 집중 인성교육 등이 시행되고, 군사훈련처 교관들도 57기 예비생도의 수준에 맞게 쉽고 정확한 교육을 준비하였다.

충성 동계군사훈련은 4학년 생도들에게는 졸업 전 마지막 훈련의 기회이자 소대장 부임 전 최종 준비의 과정이며, 3학년 생도들은 훈련을 마치면 4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또한, 충성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57기 예비생도들은 훈련을 마치면 새로운 충성대의 가족이 된다. 군인으로서 훈련을 체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전투기술의 숙달 뿐 아니라 극한 환경을 극복하며 전우애와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소령 최준호

# 사관생도들, 몸으로 직접 느끼는 병영생활

※ 본 기사는 사관생도의 체험담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사관생도들이 병영생활체험중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병영생활체험을 통해 전투지휘 능력과 부하지도능력 배양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56기 사관생도들은 전방 사단에서 병영생활 체험을 실시했다. 병영생활체험은 미래 정예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이 야전 부대에서 병영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상황 훈련을 통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성공의지를 길러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험이다.

병영생활체험을 실시하기 전에 야전에 있는 용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야전에 대한 호기심을 뒤로한 채, 7사단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참모장님의 교육이 이어졌다. 참모장님은 우리 3사관학교 생도들이 병영생활체험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첫째, 장교로서의 품위와 자부심을 지키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

둘째,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기에 체력과 정신력이 강해야 한다.

셋째, 실천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용사 및 부사관들과 관계 속에서의 진정성을 찾아야 한다. 참모장님의 교육이 끝나고 난 후, 우리는 A조와 B조로 나누어 이동했다. A조는 3연대 1대대로 이동하였고, B조는 남방한

계선 철책선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며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OP소초로 이동하여 병영생활체험을 실시하였다. 병영생활체험을 실시하며 모든 군간부 및 용사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 책임과 자부심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도 장차 임관하여 소대장이 된다면 적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소대장이 되어 조국수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12월 6일, 우리 56기 생도들은 병영생활체험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다. 향후 우리들이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우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체험은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야전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임관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56기기자생도 송승환

# 사관생도들, 고교홍보출장을 다녀오다



▲ 본교 사관생도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본인의 모교를 직접 방문해 더욱 뜻깊은 홍보

본교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사관생도들의 모교를 대상으로 고교홍보출장을 실시했다.

이번 고교홍보출장은 사관생도들이 졸업했던 모교를 직접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육군3사관학교를 소개하고 입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자신이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어 옛 추억을 떠올림과 동시에 사관생도의 멋과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복을 입고 은사님을 직접 찾아뵙게 되어

더욱 뜻깊은 홍보가 되었다. 본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고교생들은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인 육군3사관학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 광명시소재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은 "어렸을 적부터 꿈꾸었던 육군 장교가 되는 방법에는 육사 진학, 학군단 입교

등의 두 가지 방법만 있는지 알았다"고 하면서, "이번 고교홍보출장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 입교라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며 학업과 체력단련에 매진하여 3사관학교에 꼭 입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같은 고등학교의 진로진학부장 교사는 "내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당당한 사관생도가 되어 정복을 입고 모교로 홍보출장을 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더 많은 제자들이 장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55기기자생도 이선빈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마음과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 삼모모터스(주) 이재하 회장



▲ 55기 현선학 생도(좌) · 충성대신문사 주간고성진 중령(우)이 이재하 회장(중앙)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1954년 생으로 1978년 계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되었다. 이후 뜻한 바가 있어 교사를 그만두고 사업가로 변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삼협산업(주)을 설립하고 현재의 삼모모터스(주) 회장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집중과 선택의 기로를 겪었다. 2018년부터는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여전히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재하 회장과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기획취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모모터스(주)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삼모모터스(주) 이재하 회장입니다. 당사는 자동차 오토트랜스미션 핵심부품인 플레이트를 1994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연료 및 냉각수 등의 각종 이송시스템의 파이프 종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글로벌 완성차 부품업체에도 수출 중에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용 감속기를 양산 및 납품하였으며, 터치 기술에 기반한 각종 전자부품의 선행개발에 이미 성공하여 미래 시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삼모모터스(주)는 1977년 삼협산업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첫 발을 내딛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와 회사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삼모모터스를 영문으로 풀면 Sambo Motors Top R&D System의 이니셜 조합입니다. R&D 분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자동차 부품 기업의 선두주자가 되고, 100년 영속기업으로 한걸음 더 약진하고자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다른 회사와는 다른 삼모모터스(주)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모모터스(주)만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붐이 일기 전 이미 설비자동화와 R&D 역량강화에 전력을 집중하여 왔고, 이러한 과정들이 결실을 맺어 현재는 자동화 로봇의 예지보전을 통한 설비가동률 100%의 스마트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로봇과 프로그램 간 수집된 빅

데이터를 필요와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분석하여 설비와 공장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무인화,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설비 가동률 향상, 원가절감, 에너지 절감이라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조경쟁력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끊임없는 R&D 투자와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목표로 고객이 먼저 찾고 신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이 되기 위해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과거에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에서 사업가로 변모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입시위주의 교육은 ‘미술’이라는 과목을 형식적인 시간으로만 편성하여, 쏟아 붓는 정성과 시간에 비해 제정춘과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너무나 회의적이고 아까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연히 자동차 부품의 설계도를 그리게 되었고,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뒤숭숭한 정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고,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하고 전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선택한 방법이 창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사생활이 준 리더십과, 교육을 하며 느낀 양질의 노동력 확보방안은 창업의 선택에 확신을 준 근간입니다.

Q 조직을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아무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조업의 특성상 수직적인 구조와 딱딱한 분위기는 어느 회사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또한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OP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하여 권위와 복종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지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연륜과 경륜으로 직원들을 이끌고,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인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and 공감대 형성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이자 신뢰형성의 첫걸음입니다. 즉, 지위 고하를 막론한 상호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계명대학교 ROTC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으셨고, 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으신지요?

A 계명대학교 ROTC 후보생으로 기초군사훈련까지 진행한 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장교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국가를 향한 애국심이 커서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기업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인의 길 혹은 미술교사의 길을 선택했다라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Q 청년 취업난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닌 구직자들이 자신에 맞는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즉, 마찰적 실업이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학력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실업률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의 동시하락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취약한 실정인 것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생의 대기업 위주의 구직현상은 청년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증대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구직자들의 대기업 또는 공기업 위주의 취업준비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업군을 선택하고 스펙을 쌓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앞으로 정예장교가 되어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3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비전이 될 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걸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여기 계신 생도 분들은 현재를 이미 계획적으로 보내고 계시기에 주저함 없이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도생활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될지 몰라도 후에는 이 시절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라는 추억의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장교임관 후, 여러분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다시 여러 사람에게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3사관학교 생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래는 곧 여러분 그 자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55기 지생도 현선학





훈육대 소개: 4중대 **의연함의 상징, 을지문덕 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을지문덕은 고구려 영양왕 때 활약했던 인물로서, 수나라와의 전쟁 당시 고구려를 지켜낸 명장이다. 을지문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살수대첩이다. 당시 을지문덕은 고구려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7번 공격하고 7번 후퇴하며 평양 근처까지 적을 유인해낸다. 그리고 나서 을지문덕은 적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기 위하여 살수까지 추격하여 온 적장 우중문(于仲文)을 회통하여 시를 지어 보냈다. 이 때 보낸 한시가 익히 알려진 '여수장우중문시(興隋將于仲文詩)'다. 이후 수나라 별동대의 지휘관이었던 우중문은 시를 받자 때마침 피로하고 굶주려 있던 군대를 돌리게 되고, 을지문덕은 이를 추격하여 지금의 청천강 일대인 살수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그 결과 30만 5천여 명의 수나라 병력을 2,700여 명으로 줄이는 대승리를 거둔다. 이 패배 이후에도 수나라의 양제는 계속 침공을 시도했으나, 결국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력이 고갈되어 멸망하게 된다. 4중대는 패색이 짙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 장군의 구국의 정신을 본받은 중대이다.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자'는 의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뀌어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사자성어를 모토로 삼고 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즉,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것조차 배척하지 않고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군 조직은 절대 혼자 성과를 만들거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사람 간의 협업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군인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원래 꿈이 군인이었다. 이유는 제복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군장학생에 선발이 되었고 이후 다른 장교 선발 과정들도 지원을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지금까지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짧게 군 생활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 생활을 하며 많은 것들을 느꼈기에 아직까지 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면 훈육대장으로 여러분들 과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다.

#2 **중대가**



흑표범의 포효(포효) 높게 울려 퍼진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는 충성대의 꽃 조국 위한 일념(일념) 가슴깊이 새기고 명예와 충용 넘쳐흐르는 사관생도들이다 꿈을 향해 정진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하나 된 우리 호국의 간성 을지 4중대



#3 **훈육관을 만나다 - 훈육대장 소령 김윤오**

Q **훈육대장님의 인생 모토가 궁금합니다.**

A 예전에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었다. 항상 남과 비교할 텐데, 그것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나의

Q **지금까지 군 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은?**

A 군 생활 한지 14년가량 된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은 2포병여단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할 때 도움을 필요로 했던 용사 한 명을 보았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어리숙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걱정이 많이 되던 용사였다. 그 용사를 1대1로 케어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도 많이 했다. 무사히 만기 전역을 하고 난 후, 부모님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 전역하는 날, 그 인원이 모두의 앞에서 '혼자였다면 군 생활을 할 수 없었을 텐데 포대원들과 함께 헤쳐 나가고, 특히 포대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더라. 정말 뿌듯했고, 이러한 작은 감동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있게 하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Q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55기 생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여러분은 생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했다. 이제 임관을 앞둔 시점에서 3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임관하게 되면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기에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의 생도과정이 소위로 나아가는 초석이자 발판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곳에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불평불만을 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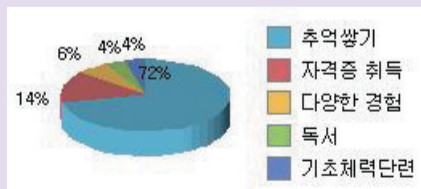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도외시한다면 도움이나 협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분의 동기, 선배, 후배와의 인적 네트워크는 견고한 신뢰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이다. 앞으로 많은 곳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면 한다.

55기 기자생도 권보일 · 56기 기자생도 박다애



**생도 앙케이트**

**예비생도들이 입교 전 꼭 해야 하는 것**



2019년이 끝나감에 따라 4학년 생도들은 임관을, 3학년 생도들은 4학년이 되어 새로 들어올 57기 후배들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충성대신문사에서는 '내년에 입교할 예비생도들이 꼭 하고 왔으면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생도 93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33명 중

663명(71%)이 추억 쌓기, 134명(14%)이 자격증 취득, 58명(6%)이 다양한 경험, 40명(4%)이 독서, 38명(4%)이 기초체력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먼저, 추억 쌓기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추억 쌓기를 선택한 생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았다. A생도는 "입교 후, 학교의 일정에 따르거나 각자 자기계발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입교하기 전 가족 및 친구들과 더욱 시간을 많이 보내며 추억을 쌓고 와야 한다"라고 했으며, B생도는 "입교를 준비하고 있는 57·58기 후배들은 들어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며 본인만의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라

고 했다. 이처럼 생도들은 입교하게 되면 가족 및 친구들과의 추억과 여행을 다니며 쌓아온 추억으로 힘을 얻는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많은 추억을 쌓아 학교생활에 지쳤을 때 힘을 얻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의견이 자격증 취득이다. 자격증이 있으면 임관해서 각자의 병과로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또 사회로 진출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생도생활 중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교 전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울 때 본인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을 미리 취득하여 생도기간 중에는 학업과 체력단련에 매진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

고 오길 바라고 있었다. 생도들이 말하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해외봉사나 전공 세미나이다. 해외봉사는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면서 본인의 견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 세미나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더욱 공부하여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의견으로 독서, 기초체력단련 등을 투표한 생도들은 "기초 체력을 기르고 독서를 꾸준히 하여 지·덕·체 모두를 골고루 익히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입교하게 될 후배들은 현재 선배생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교 전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이를 실천한다면 더욱 알찬 생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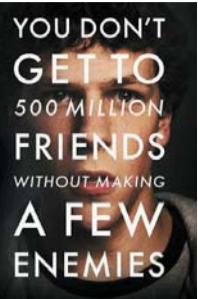
56기 기자생도 윤서규





# 소셜 네트워크

- 참을 수 없는 관계의 가벼움 -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의 출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먼 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SNS의 모순된 문제점을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마크 저커버그'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직후 술에 취해 기숙사의 여학생들의 얼굴을 비교하는 사이트인 '페이스 메쉬'를 만든다. 그의 사이트는 학생들에게 순식간에 공유되어 서버를 다운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6개월 정학을 선고 받게 된다.

하나 마크의 행위를 유심히 지켜본 하버드 엘리트 클럽의 '윙클보스 형제들'은 마크의 컴퓨터에 대한 천재성을 깨닫고 그에게 하버드 커넥션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다. 사이트 제작을 위해 고심하던 도중 마크는 인맥을 교류한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사이트를 제작할 생각을 갖게 되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왈도'의 도움을 통해 '페이스북'을 개발하게 된다. 인맥 교류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용자가 허락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었다. 이 후 냅스터의 창시자 '손'의 사업 참여로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마크의 산업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윙클보스 형제들은 마크가 자신들

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페이스북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크를 소송했으며, 마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마크의 절친했던 친구인 왈도를 버려야 한다는 손의 말을 듣고 고심 끝에 계약서로 창립 멤버이자 친구였던 왈도의 지분을 빼앗고, 그와 절교하게 된다.

페이스북이 성장할수록 마크의 인간관계는 점점 망가져만 간다. 사랑하던 사람부터 그의 절친한 친구까지도 그를 떠나간다. 페이스북으로 5억 명 이상의 친구가 생긴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난 것이다. SNS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은 더 풍족한 소통의 기회와 사회적 관계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SNS로 인해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사회적 관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광범위하지만 가벼운 인간관계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며,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멋진 삶의 모습만을 올리나, 정작 내면은 점점 빈곤해져만 가는 것이다.

SNS상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쉽다. 이런 간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선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와 눈과 눈을 맞대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이러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수록 식물은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한다. 인간관계 또한 이와 같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믿음과 헌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할민복 시인의 말처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55기 사관생도 강재원



# 팩트풀니스

지은이: 한스 로슬링, 안나 로슬링 뢰른드, 올라 로슬링  
출판사: 김영사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몇 세기를 지나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소개할 책인 '팩트풀니스'는 '사실충실성'이라는 뜻으로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과 그의 아들 부부인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뢰른드'가 함께 지은 책이다. 저자 중 한 명인 한스 로슬링은 유명한 '테드' 강연자다. 그의 테드 강연은 조회수 3,50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강연을 시작할 때 칼을 삼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만이 그의 강연이 유명해진 이유는 아니다.



작가는 테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하였다. 이들은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 통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세상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2년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2009년 <포린폴리시> 선정 세계 주요 사상가 100인 등에 이름을 올렸다. 작가들은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다.

## 세계 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 1. 20%, 2. 50%, 3. 80%

단순히 찍어도 정답률은 33%이다. 만약 칠판지에게 문제를 읽어주고 1, 2, 3번 칸에 각각 바나나를 두어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고 해도 칠판지의 정답률이 33%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80%다. 답을 틀렸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저명한 정치인, 학자들의 정답률마저 칠판지보다 낮았다. 왜 사람이 칠판지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팩트풀니스는 세상을 오해하는 '체계'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책은 세상

에 대한 오해를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하되,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도구를 제시한다.

작가는 얘기한다. "우물 안에 계속 갇혀 살기보다 올바르게 사는 데 관심이 있다면, 세계관을 흔쾌히 바꿀 마음이 있다면, 본능적 반응 대신 비판적 사고를 할 준비가 되었다면, 겸손함과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감탄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 충성제를 빛낸 생도들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은 충성제가 대대원의막을 내렸다. 학교내 모든 간부들과 사관생도 용사들이 하나되어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즐거운 충성제를 보냈다. 이 중 충성제를 빛낸 생도들 중 응원단 시리우스의 단장을 맡고 있는 55기 신하운생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 응원단상에 처음 올랐을 때 기분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7번의 공연을 했다. 시리우스 응원단의 첫 번째 무대는 개교



51주년 기념 간부체육대회에서의 공연이다. 행사 한 시간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황도 없고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응원단상에 섰다. 당연히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우리가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공연 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본것은, 단원들이 정확한 동작과 밝은 미소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보며 뿌듯해진 나는 성공적으로 첫 공연을 끝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충성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응원단상에 올랐을 때는 기분이 복잡했다. 이전

공연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무래도 생도 앞에서 처음 선보이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장할 때 동기와 후배들이 이름도 외쳐주고 함께 뛰어놀려는 모습에 이 무대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번의 공연을 하면서 지금은 응원단원 모두가 한결 여유로워진 것 같다. 학교에서 우리 시리우스 응원단에게 공연을 부탁하면, 언제나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3. 가장 좋아하는 응원곡은 무엇인지? 충성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응원곡을 연습했지만 사실 특별히 좋아했던 곡은 없었다. 주어진 시간은 부족했고, 전수대학 응원단의 동작을 일부 참고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3사관학교만의 개성 있는 응원곡을 따로 만들고 싶다. 애착이 간다면 이후 만들어질 응원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사관생도의 밤 행사 때 공연했던 '질풍가도' 응원곡이 기억에 남는다. 생도들이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환호했던 그순간은, 그동안의 생도 생활에서 잊지 못할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 4. 임관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단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충성제 이후 응원단장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모두 시리우스 응원단원들 덕분이다. 알다시피 응원단은 전체가 하나 된 동작을 해야 한다. 단원들이 응원단장을 믿고 따라왔기에 우리 응원단은 한 단계 더 성장했고,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제 시리우스 응원단을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하지만 시리우스 응원단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3학년 단원들이 응원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기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사관학교라는 특수한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리우스 응원단원들이 가진 힘과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56기 기자생도 유동엽

사설

# 나는 과연 무엇을 지켜왔는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 어떨 때는 기쁘기도,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 해 동안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은 국가의 안녕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살아왔을 것이다. 특히 우리 같은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가장 큰 목표로 한 해를 열심히 보냈을 것이다. 개인마다 소중한 것은 다 다르겠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란 할 수 있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공감을 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굶주리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세상의 평판도 절대로 아니다. 그 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반대로 가장 소홀히 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기(自己)이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기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自身)인 것이다.

대학(大學)에서 이야기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대강(大綱)과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정과 국가와 그 이상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선인들이 경계하는 것처럼 절대 ‘집일(執一)’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주의는 바로 ‘집일’의 원인이 된다. ‘집일’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 국가 그 이상의 것들을 모두 황폐하게 한다. ‘집일’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용(中庸)을 바탕으로 한 ‘집중(執中)’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바로 이 시점,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혹여나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잊고 물질적 행복, 세상의 평판에 경도되어 중심을 잃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가정, 국가, 그 이상의 소중함을 모두 찾을 수 있는 충성대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 생일선물 유감

## 충성대 칼럼

중령 정병 삼(군사교양학처 교육학과장)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다. 표준어 파괴현상이지만 세상의 흐름이기도 해서 그저 외면하기는 어렵다. 생일선물의 줄임말로 ‘생선’이 유행이라 얼마 전 초등학생인 아들의 생일에 그 문제의 ‘생선’을 고민했다. 아이 엄마는 아들이 영어공부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초등영어 단어장을 선물했고, 고등학생인 누나는 종이접기 책을 선물했다. 필자는 바쁜 한국 아버지답게 ‘생일 축하 한다’는 내용의 카드 한 장으로 소위 ‘퉁 찻다’.

아내가 아들에게 준 선물은 무심하게 넘겼으나, 딸아이의 선물에는 눈길이 갔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매일 밤 12시 넘어서 귀가하고, 주말에도 보충수업에 시달리는 딸아이가 기특하게도 어린 동생이 요즘 종이접기에 푹 빠진 것을 눈여겨 본 모양이었다. 얼핏 보면 아내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영어 학습에

의 역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열’ 만큼은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취지의 대학입시 전형도 자본주의와 화학결합을 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 버린다. 부유층 부모의 ‘스펙’으로 급조되거나, 날조된 ‘스토리’가 자녀의 포트폴리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는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입시과정에서 함께 짊어져야 한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입시코디네이터의 명대사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가 공교육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필자에게 이러한 입시현실은 고등학생 학부모형으로서 질곡이자,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고통스런 연구주제이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자녀의, 학생의 행복을 말한다. 다만, 스펙주의자들은 상위권 대학 진



도움이 되는 매우 ‘교육적’ 투자를 한 것이다. 반면, 딸아이는 어린 남동생과 자주 놀아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선물을 빙자한 ‘뇌물’을 준 것으로도 보인다.

그 때 분득 뇌리를 스치는 두 단어가 있었다. 소위 ‘스펙’과 ‘스토리’이다. 한 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아들의 ‘스펙’에 투자한 셈이고, 딸은 남동생의 ‘스토리’에 자양분을 공급한 것이다. 아들은 일본의 종이접기 작가 ‘가나스키 도키고’가 지은 책을 보고 뿔 듯이 기뻐했고, 그동안 자신과 놀아주지 않은 누나의 ‘큰 죄’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었다. 책 제목이 ‘365일 종이접기’이니 만큼 매일 하나씩 아껴서, 꼼꼼히 종이접기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고 있고, 필자와 아내는 쌓여가는 그 ‘작품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아들은 책 지은이처럼 자기도 종이접기 작가가 되고, 종이접기 유튜버(Youtuber)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필자의 집에서 일어난 작은 ‘생선 해프닝’인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묘하게 파장을 남긴다. 항상 그랬지만 사회가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스펙 조작’이 의심된다고 대서특필이다. 그 말 많은 수시입학이니 특별전형이니 하는 제도의 출발은 ‘스펙’이 아니라 지원자의 ‘스토리’에 가중치를 두고 선발하겠다는 의도였다. 한국의 대학입시 환경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입시전형에서 그들

학이 곧 인생의 성공이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냈고, 또 그 등식이 통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조작한다. 그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은 소위 ‘성적순’으로 급식을 주고, 좋은 학습실을 배정하며, 각종 수상실적을 나눠주는 어이없는 학교의 차별을 체념하며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깨어있는 소수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듯이 남들과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필자의 고등학생 딸은 남동생에게 스펙이 아닌 다른 길도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으리라.

오늘도 어김없이 큰 북소리와 함께 생도들이 군가를 부르며 교실을 향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신분이 달라졌을 뿐 생도들이 사관학교에서 수없이 들어야 하는 공식도 역시 ‘스펙=행복’이다. 졸업 등수, 장기선발, 진급 등을 위해서 딴 생각 말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스펙을 쌓으라고. 하지만 아둔한 필자도 20년 군 생활 속에서, 또 40년 인생 경험에서 이제는 어렵잖이 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필자는 오늘도 생도들의 눈을 힐 있게 들여다보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가정에서 벌어진 ‘생선 해프닝’의 아주 작은 교훈도 함께 전할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으려 스스로에게 가슴 시리게 따뜻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라고.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풍속

### 사회 저명인사 칼럼

이 상규(경북대학교 명예교수, 前 국립국어원장)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뉴스를 말하거나 전달하고, 그 뉴스를 들으려고 전달자 주변에 몰려든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의 유형만 다를 뿐, SNS에 모여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기웃거리고, 뉴스가 있으면 큰 소리로 전하는 크라이어(crier)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은 폐해가 발생한다. 소셜 미디어 피해의 규모와 범위는 예측이 어렵고 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 재해', '소셜 미디어 대재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듯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사회의 성숙은 끊임없는 반성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성찰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발전을 전망할 수 없다. 최근 소셜미디어 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성댓글, 괴롭힘 등은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리 정보를 퍼 나르는 현상도 문제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SNS를 통한 루머와 비난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사건의 진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사건을 재조망해 보면 사건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서서 조망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한 집단적 선동의 위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앞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에 관한 사회적 증상에 대해 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미디어 변화의 힘이다. 미디어를 통한 언어의 파워다.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 통제 기능이 무력화되고 다매체를 통한 다중 집단의 힘이 강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매체의 힘은 바로 언어라는 도구의 확산 속도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시시콜콜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곧바로 공개가 가능해졌다. 동시에 이

로 인해 국민적 감시감독의 기능이 확대되고, 민주화의 가장 큰 이상이었던 인권과 개인자유의 권한이 확대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를 통한 폭력의 가해는 선후를 가리지 못할 뿐 그 이전의 역사와 별반 더 나아진 것이 없다. 좀더 발전된 지성의 국가나 국민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성의 풍경을 들여다보자. 한때 대중의 시대정신을 이끌었던 대학 교수나 소수 엘리트 지식인 집단은 화려했던 은막 밖으로 퇴조하고 있다. 대신 의사, 배우, 개그맨, 스타, 판사들처럼 다양한 지식 그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순발력과 발랄한 젊은 세대에게 먹혀들어가는 가벼운 담론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다. 지식·정보 생산의 중심에서 있던 핵심 지식인들이 왜소해지고 세대 흐름에 맞는 바른말 한마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체계성에 기초를 둔 지식 생산에 몰두한 나머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힘과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한때 존경의 대상이던 그들의 순발력과 종합하는 능력은 물론, 설득하는 창조적인 힘이 쇠잔해진 결과가 아닐까? 가벼운 유희의 언어, 자극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 진실이 불확실한 언어가 지식이나 지성의 담론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성의 언어가 조락하는 가벼운 사회 이후에 불어 닥칠 변화가 무엇일까? 절제를 상실한 풍요와 사회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구성원의 파산으로 로마 제국과 러시아제국은 멸망했다. 그러나 민주발전에서 이리 내몰리고 저리 구축 당하던 오랑캐 무리들이 결집하여 대청

제국을 일으켰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의 한국호는 어디로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호에 승선한 사람들의 지성의 품격은 바다가 깊은지 모르고 가라앉고 있다.

지금은 부모나 친구조차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면 소통 방식에서 휴대전화, 웹,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대이다. 나아가서는 한번도 만난적 없는 사람도 네트워크를 통해 결속하고 집단화한다. SNS는 자유로운 소통과 멘토를 통한 이상적 답안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집단을 통한 지식·정보의 통합과 구축 그리고 개방적인 나눔이 가능한 무한의 창조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네트워크 속에 소통되는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이 사회는 이미 스스로의 자정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락의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꼴이다. 곧 소셜 미디어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굴절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관생도들도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지식·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조국을 수호하고 미래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사관생도들이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가 지적 창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식·정보의 공유와 자유로운 멘토를 통한 소통 도구로서 SNS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화의 방식이다. 경쟁보다 공감의 속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SNS를 활용해주길 바란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국방과학

###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⑤

제갈덕주(꿈창적연구소소장)



몇몇 산업 분야에서 벌써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다양한 실적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금융 인공지능일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관점에서 기계의 감각과 지각, 그리고 동작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러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실제로 어떤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번역말뭉치 분야에서는 '한영 병렬 말뭉치 80만 문장'을 구축하여 AI 번역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사물이미지 분야에서는 '한국형 이미지 데이터 360만

장'을 구축하여 사물 인식 AI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글자체 이미지 분야에서는 '한글 글자체 이미지 500만 장'을 구축하여 자동 한글 인식 AI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인도보행영상 분야에서는 '인도 및 횡단보도의 라벨링 데이터 500시간'을 구축하여 자율형 장애인 보조기기를 개발한 바 있다. 안면이미지 분야에서는 '한국인 얼굴 이미지 데이터 1,800만 장'을 구축하여 얼굴 인식 AI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융합영상 분야에 있어서는 '감정 관련 영상 데이터 50시간'을 구축하여 상황 인지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위험물 이미지 분야에서는 '위험물 X-ray 이미지 42만 장'을 구축하여 AI 보안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동작

영상 분야에서는 '사람 동작 영상 데이터 50만 클립'을 구축하여 서비스 AI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질병 진단 이미지 분야에서는 '주요 질환 관련 이미지 및 진단 결과데이터 1만 장'을 구축하여 AI 보조 질병 자동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이상행동영상 분야에서는 '영상 데이터 300시간'을 구축하여 지능형 AI CCTV를 개발한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지능형 상품과 서비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방과학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육군 인공지능연구발전처에 따르면 국방과학의 활용 분야는 'C4I', '정보', '화력', '기동', '방공', '작전지속지원' 등 여섯 개 분야로 나뉜다.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외국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과학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 중인데, 정보통신기획평가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까지 무인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또한 2021년까지 무인 인공지능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딥러닝 신경망과 드론을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 한다. 분명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문물을 보급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고 배우고 익혀 대비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몫이다.

따라서 더욱 부단히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마침 지난 11월 15일 육군3사관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관학교 교육방향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충성대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각 양각색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군이 가야 할 방향성과 장교의 역할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앞선 걸음이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전쟁과역사 <6>

# 일제의 대한제국 병합과 민족 독립운동



대위 문준호 (교수부 군사사학교수)

미국의 중재를 통해 러일전쟁을 승세로 종결할 것이라 판단한 일본은 발 빠른 외교행보를 보였다. 러시아의 패배는 극동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적 과업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대프트조약을 체결하여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대한제국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받았으며, 이어서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대한제국에서의 우위 확보를 공식화하였다.

한편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한일신협약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종황제는 일본의 불법성을 세계민방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실상 사회진화론에 사로잡힌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분할을 위한 이권 조정회의였기에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행위를 분제시 삼았던 일본은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대한제국의 보루인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더욱이 언론 장악을 위한 보안법과 신문지법이 공포되며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럼수록 국내에서의 항일운동 또한 강화되었는데, 특히 해산군인의 참여로 의병은 전술 및 무기체계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전국규모

의 항쟁 분위기 형성으로 13도 연합 의병의 창설을 천명하며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소규모 부대들은 민중 속에서 유격전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를 지속하였다. 일제는 핵심지역이었던 호남 봉쇄를 통해 해안으로 빗질하는 형태로 잔혹한 남한내도벌을 자행하였다. 이 무렵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 장군의 의거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도 하였으나, 일제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빌미로 병합 청원이 폭주하였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제의 위정자들은 러시아, 영국, 미국과 차례로 협약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병합을 승인받았다. 육군대신 데라우치가 병합위원회를 이끌며 제도를 구축하였고, 대한제국 내각총리 이완용이 이를 보조하였다. 경술년 불법적 병합협약으로 대한제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며 중앙의 요직에 일본인을 등용하고 부일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폭압적 헌병을 앞세운 무단통치는 물론 식민지 노예 교육을 주입하였다. 특히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을 들먹이며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는 등 식민지배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 작업을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탈적 토지조사사업으로 한반도는 일본 자본주의의 자원 공급지로 전락하며 경제적으로도 예속되었다.

일제의 폭압으로 다수의 의병과 계몽운동가들은 국외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간도에서는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광풍단과 신흥무관학교 등이 설치되어 비타협적 무장 항쟁의 전사들을 양성하였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외교독립 노선을 펼치며 제1차 세계대전 등 국제정세에 주목하였고, 미주에서도 무장투쟁과 실력양성을 주장하며 민족운동이 지속되었다.

민족자결을 기치로 내건 3·1운동은 민족대표의 적극적 참여가 부재하였음에도 거국적 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일제는 무자비한 초토 작전을 펼치며 학살과 만행으로 야만성을 드러냈다. 이후 총괄적인 독립운동 지도를 위해 통합 정부 수립이 거론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구성원들의 사상과 이권갈등은 봉합되지 않았고, 독립의 방법론에서 외교론과 전쟁론은 여전히 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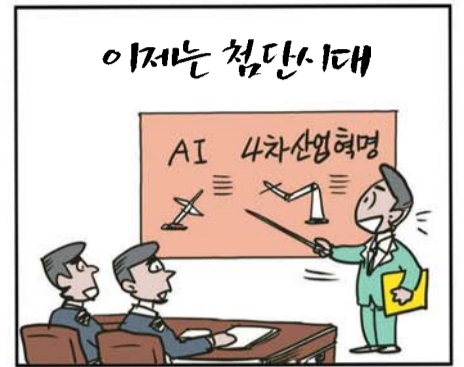
기만적인 유화정책이었던 일제의 민족분열정책에도 불구하고 만주지역에서는 군소 독립군들이 통합과정을 거치며 동포사회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흥분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은 한만 국경 일대에서 일본군 통치기관이나 분견대를 파괴하는 등 성과를 올렸고, 특히 봉오동에서 유인 및 매복으로 일본군 1개 대대 병력을 격파하였다. 한편 전투력이 가장 강했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는 훈춘사건 이후 대규모로 전개한 일본군에 맞서 허룽현 청산리 일대에서 6일간 십 수차례의 전투를 통해 승리하였다.



▲ 청산리전투 승전 기념사진

이후 일제는 1931년 만주 침략을 계기로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파국적 팽창을 지속하며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작전지속능력 확보를 위해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시총동원 체제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수탈은 폭증하였다.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대일전쟁에 참전 참여하기도 하였다.

## 634 메아리 (1) 마태석



지역문화탐방 <5>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안동을 방문하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감성충전 여행,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인 안동으로 여행을 떠나보았다. 안동은 많은 여행코스가 있다. 일정별 코스, 테마여행 코스, 순례길, 박물관 탐방 등 많은 코스가 존재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안동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하회마을 코스이다.



▲ 하회마을전경

첫 번째 소개할 곳은 하회마을이다.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인 류운룡 선생, 류성룡 선생의 출신 고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대대로 풍산 류씨가 살아오는 동성부락이다. 낙동강물이 흐르다가 이 지역에서 마을 감싸 돌면서 흐른다고 하여 '하회'라는 지명이 붙었다. 별신굿탈놀이와 하회탈이 유명한 마을이다.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고택과 정자들, 서낭당, 정려각, 노거수 등이 있어 볼거리가 많다.



▲ 하회세계탈박물관

하회세계탈박물관은 탈 전문 박물관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탈들을 한자리에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요한 탈들을 수집하여 한국탈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240명의 전시실은 한국관, 아시아관, 세계관, 특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나만의 탈(다양한 탈 용품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 부용대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용대이다. 태백산맥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며 정상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회마을 관광백미 중의 하나인 부용대는 중국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부용은 연꽃을 뜻한다. 처음에는 북애(北垓)라 했는데, 이는 하회의 북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언덕 아래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옥연정사, 겸암정사, 화천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나룻배를 이용하여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병산서원이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서, 류성룡과 그의 셋째아들 류진을 배향한 서원이다. 병산서원의 전신

은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으로, 고려말부터 사람들의 학문의 전당으로 1614년 서에 류성룡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존덕사를 창건하여 위패를 봉안했다. 1868년 대원군 서원 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47개, 안동 2개소 중 한곳이다. 병산서원의 부속 건물로 장관각·만대루·복례문·주사 등이



▲ 병산서원

있어서 고즈넉하게 풍경을 감상하며 역사를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외에도 낙동강생태학습관, 안동한지체험관 등 하회마을 코스에는 다양한 구경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조용하지만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선비정신을 지키며 살았던 군자의 흔적과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인 안동으로 떠나보자. 551기자생도 김홍윤



# 겨울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자!

## 건강상식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 교수 소령 황선영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기분이 좀 더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흔히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불리는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는 가을이나 겨울철 우울증상과 무기력증이 두드러지다 봄과 여름이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 매뉴얼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는 계절성 정동장애를 별도 질환 명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특정 시기에 우울감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을 때 '계절성 동반'을 명시하고 있다.

겨울철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부족한 일조량과 일조시간의 감소가 우리 몸의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낮 동안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 신경전달물질 가운데 멜

라토닌의 분비가 감소된다. 멜라토닌은 뇌 안의 송과선에서 생성·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낮·밤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의 변화 같은 광주기를 감지하여 생체리듬을 조절하고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복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로토닌의 합성 또한 저하된다.

두드러진 증상은 겨울철 심해지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며 더불어 자주 짜증

이 나거나 쉽게 피로하고, 타인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인 우울증상과는 달리 수면시간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과식(특히 탄수화물의 섭취 증가)을 하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관리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가벼운 산책, 조깅과 같이 주기적인 야외 활동을 통해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일조량을 채워주기 위해 강한 광선(10,000Lux)에



노출시키는 광선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둘째, 춥다고 따뜻한 실내에서 쉬기 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이나 고통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항우울 효과를 유도한다.

셋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등 푸른 생선, 연어, 견과류 등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는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수치를 적절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족한 태양광을 보완하기 위해 비타민 D가 풍부한 굴, 우유, 달걀, 버섯을 먹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치즈나 닭고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 견과류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한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생각을 집중하게 만든다. 마음챙김(mindfulness)과 같이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 태도로 자각하는 상태를 위해 호흡, 명상, 일기쓰기와 같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즐겁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중요한 우리의 정신적 건강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철 더욱 더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 독자투고

#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 ㉗ 백학학원(白鶴學院)을 찾아서

2019년 마지막 '명문가를 찾아서'는 지난 10월에 연재한 항일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이어서 진행하였다. 영천지역에 유난히 항일독립투사들이 많은 이유는 오늘 소개할 백학학원(白鶴學院)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백학학원 입구 표지판

백학학원은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24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찾아가던 독립 운동가들의 기념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백학학원의 연혁은 사실 오래되었다. 본래 1553년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이 신녕 현감 재임 시 고을의 선비들과 더불어 백학산(白鶴山)의 아래 서당을 건

축하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에게 이름을 청하자 선생께서 '백학서당(白鶴書堂)'이라 명명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서, 1612년에 중건하였으며, 1658년에 땅이 협소하고 위치가 궁벽하여 현 위치(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241번지 소재)로 옮겼다. 1678년에는 서당을 서원으로 승원(昇院)하고, 사당은 '상덕(尙德)', 강당을 '전교(典敎)', 누각을 '풍영(風詠)'이라 하여 퇴계 이황과 금계 황준량 두 선생을 제향하였다.

1868년 고종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1900년에 다시 서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이어 일제강점기인 1921년, 일제의 식민 교육정책에 대항하여 수많은 독립 운동가를 교육하고 배출하였다.

백학학원의 교육이념은 이곳에서 수학한 후 항일독립 전선에 뛰어든 많은 애국지사들의 활동에서 잘 나타나는데, 민족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일제에 저항한 저항시인 이육사를 비롯하여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조재만, 중국에서 광복군 간부로서 활약한 이진영, 조선의용대(군) 중대장으로 서 대일 무장투쟁을 주도한 이원대, 일본에서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한 조병화, 그리고 이육사와 함께 의열단간부



▲ 독립운동가 이육사선생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대원 모집 활동을 전개한 안병철 등이 모두 백

학학원 출신들이다.

사실 지역민의 무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방치되어 붕괴의 위협에 직면했었지만 다행히 2017년 국가와 영천시의 지원으로 현재는 복원되었다. 다만 예전의 고풍스러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아쉬웠다.

현재는 민족정기를 교육하는 교육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 독립 운동가들의 올곧은 정신이 후세까지 계속 이어져서, 백학(白鶴)이 아닌 청학(靑鶴), 현학(玄鶴)학원으로 후인들에게 기억되길 기원한다. (白鶴이 천년을 살면 靑鶴이 되고, 청학이 천년을 살면 玄鶴이 된다고 한다.)

중령 최재호



▲ 현재 백학학원(白鶴學院)의 모습



# 2019 정기 장군 인사(진급 및 취임)

매년 10월 중순이면 장군진급 발표가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늦은 11월 8일 오후에 발표되었는데 올해는 53명이 진급을 했다. 그 중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군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6명이 진급을 했고 준장에서 소장으로 1명, 소장에서 중장으로 1명이 진급을 했다.

진급은 개인의 영예도 있지만 그 소속된 집단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특히 이번에는 허강수(23기)소장이 중장으로 진급을 하여 제7기 동군단장에 보직되었고, 고창준(26기)생도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여 제37보병사단장에 보직됨으로써 사관생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육군3사관학교 동문 중 최초로 장군진급한 인원은 박영하(예)대장(3사 1기)으로서 1996년도에 진급했다. 박영하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하였고,

뒤를 이어 박성규 대장(10기), 이순진 대장(14기), 박종진 대장(17기)이 4성 장군으로 진급을 하였다.

현재는 황인권(20기, 대장) 제2작전사령관이 현역 중 최상위 계급자로서 복무중이다. 2019년 11월 현재까지 장군진급자는 총 188명이며 이중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군은 33명이다.

올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동문은 전창영 준장(25기), 이용환 준장(26기), 김기홍 준장(26기), 신창대 준장(26기), 우성제 준장(27기), 조우진 준장(28기)등 모두 6명이다.

한편, 지난 12월 20일 고창준 소장(26기)의 뒤를 이어 김호복 준장(27기)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취임을 했다. 55기 기자생도 고명 환



▲ 지난 11월 15일 제7기동군단장으로 취임한허강수(23기) 중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동문들



▲ 제2작전사령관 황인권 대장(20기)이 고창준 소장(26기)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 제15대 총동문회장 한동주(예. 중장)동문 당선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28일 18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제3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5대 총동문회장으로 14기 한동주 예비역 중장을 선출했다.

이번 총동문회장은 13기, 14기, 15기 동기회에서 각 1명씩 추천을 하여 선발하게 되어 있었으나 13기, 15기 동기회에서는 추천자가 없었고, 14기 한동주 예비역 중장이 단독으로 출마를 하여, 투표 결과 98.7%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한동주 신임 총동문회장은 현역시절 제3야전군 사령부 부사령관, 제3군단장, 제9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전역 후에는 14기 총동기회장 및 임관 30주년 추진위원장, 한반도통일지도 자총연맹 중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동주 총동문회장은 육군3사관학

교 동문의 위상제고, 동문회 및 동문회관 기금 확보, 동문 인재양성방안, 학교발전방안 등 4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동주 총동문회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조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학교와 총동문회 간의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행사 시 현역과 예비역 간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 격려하고 예비역 동문들에게는 애교심 고취와 현역 동문에게는 선배들의 모습을 닮고 싶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싶다.

또한 학교발전재단과도 상호이해와 관계 형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5기 기자생도 김관웅



▲ 3사 총동문회 제15대 총동문회장으로 14기 한동주 예비역 중장(가운데)이 당선 되어 15기 동기회 총무 김동찬(왼쪽)과 2기 양원모 예비역 중장(오른쪽)이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 인천·부천 동문회장이·취임식



▲ 인천·부천 동문회장이·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정인) 하총동문회장(12기), 그 오른쪽이 홍성식이임회장(19기), 왼쪽이 문용현 취임회장(21기)이다.

**이임회장: 홍성식(19기)**  
**취임회장: 문용현(21기)**

지난 11월 30일 18시 인천시 부평구 소재 플라리스웨딩홀에서 인천·부천 동문회 제6·7대 회장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동문은 물론, 55기·56기 사관생도들도 함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 깊게 하였다. 특히, 지역 내 안보 및 유관단체 회장들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는데, 재향군인회, ROTC 연합회, 학사장교 연합회, 장교 연합회의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인천·부천 동문회는 지역 내 여러 안보단체들과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 동문회보다 예비역 단체로서 남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제6대 회장 홍성식(19기) 이임회장은 “이임하는 날까지 선·후배분들과 여러 단체장, 사관생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새로 취임하는 문용현 회장(21기)도 인천·부천 동문회를 잘 이

끌어 나갈 것으로 믿고, 더욱더 발전하는 동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식 이임회장은 인천·부천 동문회에서 사무총장 3년, 회장 3년을 봉사했다. 또한, 모교 태권도 교관으로 재직하면서 모교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으며, 후배 사관생도들에 대한 사랑이 큰 동문이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문용현 취임회장(21기)은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아, 동문회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며, “앞으로 동문회의 발전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55기·56기

사관생도들이 폐회식에 앞서 교가를 제창할 때, 앞에서 선창을 해주어 행사의 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55기 기자생도 금성혁



▲ 55기 사관생도가 제7대 문용현(21기) 취임회장에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19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9. 10. 1~12 17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75억 7,781만원(2019. 12. 17 기준)**

■ **단체/일반시민** : 3사 26기 동기회 1,000(1,300), 3사 44기 동기회 1,000(3,500), 조재묵 10(210)

###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軍간부

허중권(육사#38) 30(50), 정한기(육사#39) 2(77), 최원규(육사#44) 3(7), 김호길(육사#48) 3(33), 홍성애(육사#48) 3(18), 김태욱(육사#51) 3(10), 두석주(육사#51) 3(142), 이우진(육사#54) 3(44), 박기홍(육사#55) 3(104), 이승규(육사#56) 3(25), 조상근(육사#56) 3(118), 변용성(육사#58) 3(83), 손창호(육사#58) 3(52), 이귀현(육사#58) 3(77), 이주실(육사#58) 3(62), 차도원(육사#58) 3(36), 김대영(육사#59) 3(144), 김진찬(육사#61) 3(47), 홍희종(육사#61) 3(79), 이한우(육사#63) 3(7), 오민경(육사#65) 3(22), 홍인재(육사#65) 3(12), 최병권(육사#66) 3(11), 문준호(육사#67) 3(27), 이친우(육사#68) 3(22), 권성진(육사#69) 3(10), 부형준(육사#69) 3(37), 조경근(육사#69) 1(3), 이진호(육사#24) 3(66), 한덕수(육사#26) 3(79), 고성진(육사#31) 3(13), 구희관(육사#32) 3(86), 유명근(육사#36) 3(61), 전성권(육사#36) 3(36), 박홍렬(육사#37) 3(12), 송경재(육사#37) 3(106), 조환희(육사#41) 3(20), 황태열(육사#41) 3(135), 김재운(육사#43) 3(34), 김광윤(육사#44) 3(32), 이종민(육사#44) 1(6), 김태룡(육사#48) 3(24), 이세훈(육사#48) 3(5), 민병구(육사#48) 3(12), 홍현신(육사#48) 3(3), 김민범(육사#49) 3(6), 박동선(육사#49) 3(8), 윤정훈(육사#50) 3(9), 김동진(육사#51) 3(32), 구민수(육사#52) 3(65), 유강인(육사#52) 2(23), 황가영(육사#54) 2(16), 박주오(육사#7) 3(95), 최재호(육사#29) 3(106), 최용식(육사#33) 3(8), 이준수(육사#35) 3(90), 장혜익(육사#46) 3(7), 김영각(육사#49) 1(22), 김호근(육사#49) 1(8), 김미룡(육사#54) 1(39), 임도현(육사#54) 3(85), 구주현(육사#55) 3(8), 임재훈(육사#55) 1(51), 성현애(육사#56) 3(28), 전여울(육사#58) 3(36), 심경현(육사#58) 3(16), 차성복(육사#45) 53(193), 김소현(육사#46) 1(1), 최순조(육사#46) 1(33), 서나한(육사#47) 2(24), 강소영(육사#49) 3(19), 이희경(육사#49) 3(19), 김형태(육사#22) 3(36), 김세영(육사#28) 3(25), 박승재(육사#30) 3(10), 강찬영(육사#61) 3(12), 정영진(육사#18) 3(18), 최우혁(육사#18) 2(17), 최윤정(육사#38) 3(21), 송소연(육사#58) 2(2), 이각우(육사#36), 전경익(육사#35), 우의택(육사#36), 진장철(육사#35), 군무원 김영건 1(58), 김인수 3(18), 류재운 3(174), 안영주 3(24), 양성우 3(46), 정혜란 3(3)

■ **신분미확인** : 김시우 3(5), 이현주 10(10)

### ■ 졸업·재학생도 부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우해성(38부) 10(139), 김종국(41부) 10(320), 이창주(42부) 4(248),

김중순(45부) 4(14), 조경해(45모) 10(705), 이규백(47부) 10(80), 장순일(49부) 6(256), 성동모(50부) 4(164), 정경숙(51모) 3(71), 안순봉(51모) 30(190), 윤우상(51부) 3(70), 김현미(52모) 3(28), 이선화(52모) 15(525), 이영미(52모) 6(235), 정정화(52모) 2(321), 박일심(53모) 6(86), 조경숙(53모) 4(84), 홍성기(53부) 3(46), 황경부(53부) 20(450), 김동주(54부) 3(9), 윤명남(54모) 10(160), 이기성(54부) 9(103), 조두현(54부) 10(60), 홍성은(54부) 2(216)

### ▶ 4학년 학부모(가나다순)

※ **개인기부액 확인(www.kaayfor.kr)/내기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창희, 김상균, 김동환, 김진우, 박철, 서원수, 유현구, 윤연희, 이강천, 임종철, 전근화, 정수태, 정원섭

### ▶ 3학년 학부모(가나다순)

고경옥, 김왕기, 김중기, 김동학, 맹현주, 송학민, 신윤영, 정희숙, 천병수, 최동욱

###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 ▶ 1기 김용하 2(111), 남훈조 21(1,115), 임관택 3(60), 장춘길 1(2), 전수천 3(77), 최익환 3(62)
- ▶ 2기 윤경혁 30(550)
- ▶ 3기 정영집 5(220), 한민우 1,000(8,000)
- ▶ 5기 김일순 5(365)
- ▶ 9기 권영호 10(295), 김용채 4(14), 김현기 15(1,118), 윤지환 6(81), 이환희 5(85), 최병학 10(1,130)
- ▶ 10기 최영돈 500(6,500)
- ▶ 14기 김중환 2(36), 안호 30(1,620), 이용진 10(170), 허병욱 2(350)
- ▶ 15기 김성연 100(401)
- ▶ 16기 신수철 20(30), 이종우 2(139), 황병태 6(278)
- ▶ 18기 권연덕 3(109), 금융백 9(510), 노희태 6(256), 진기상 20(1,020)
- ▶ 19기 김익수 10(176), 이경희 2(152), 이종형 3(217), 이창호 9(516), 임영갑 10(100), 임종철 3(45), 홍성식 3(178)
- ▶ 20기 김윤희 2(46), 박관순 2(127.4), 서정열 30(445), 조길상 4(52), 황인권 10(415)
- ▶ 21기 김동일 30(30), 신철수 4(594), 장달수 3(87)
- ▶ 22기 권순태 3(32), 이진성 3(240), 정경호 2(24), 조태환 3(116), 천병규 300(370), 홍성덕 5(171)
- ▶ 23기 김창수 6(200), 김태일 3(209), 배요식 3(122), 신영찬 3(52), 손민호 3(15), 정철재 6(96), 허강수 53(251)
- ▶ 24기 박종만 6(12), 권금락 6(244), 권오봉 2(193), 김도협 3(212), 김지영 137(511), 남용구 2(241), 모경원 3(207), 박세철 3(51), 방성태 3(61), 안연준 2(74), 이문휘 3(7), 정정현 3(171)
- ▶ 25기 김남용 3(114), 김민정 3(122), 김희식 1(189), 문봉성 3(132), 서성권 3(46), 손영기 3(112), 이종현 3(31), 이상복 1(15), 장광선 9(318), 장무수 3(29), 전희준 3(285), 조재희 3(103), 홍은표 3(181)

- ▶ 26기 고창준 3(128), 김영선 6(380), 박윤옥 2(185), 신충인 6(159), 신태영 3(89), 유근환 3(15), 이원주 4(89), 이태인 6(22), 임우영 3(224), 장용빈 6(90), 홍순범 3(190)
- ▶ 27기 김덕중 3(48), 김지덕 2(2), 김호복 3(180), 석수열 2(26), 안병욱 3(149), 원희문 15(145), 이희순 2(219), 정월균 3(7)
- ▶ 28기 권승영 1(515), 권양철 3(88), 김진길 3(60), 김창현 1(147), 박기수 3(71), 박용섭 6(133), 서청수 3(152), 유정일 3(21), 윤석찬 2(120)
- ▶ 29기 김강식 3(225), 김용식 3(64), 박성훈 3(133), 박태용 3(112), 이상일 3(168), 이상태 6(190), 이의규 3(95), 임성호 3(144), 최인섭 3(106), 현대식 3(130)
- ▶ 30기 김백중 3(18), 김중권 3(64), 김효성 3(24), 남진오 3(35), 이진 3(129), 임상달 3(99), 주경호 2(93), 홍성범 3(17), 함민호 3(80)
- ▶ 31기 권동호 6(22), 김민식 6(58), 김영태 3(161), 김희엽 3(206), 엄항수 3(116), 이재춘 3(190), 이훈복 3(28), 최대집 3(26), 류광현 2(16), 전경인 3(13)
- ▶ 32기 권관덕 9(275), 김화용 3(93), 송진수 2(47), 이태현 3(28)
- ▶ 33~54기 개별 기부현황은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또는 『충성대첩』에서 확인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참여계좌/기부영수증 발급안내

### ■ 기부참여 계좌 :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업/개인명의 기부가능, 세금감면용 기부영수증 발급

### ■ 기부영수증 발급안내

- 47~54기 졸업생 중 자동이체 기부자는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자료확인
- 상기기수 이외 기부자는 본인 직접 재단 홈페이지(www.kaayfor.kr) "영수증발급" 클릭, 성명을 입력 시 온라인에서 영수증 다운로드 가능
- 영수증 발급은 홈페이지 화면 상 성명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 화면 김삼사(모), 입력시 김삼사로 하면 다운로드 불가합니다.

### ■ 문의처 : 군 952-3180 일반 054-330-3180, 3182

홈페이지 www.kaayfor.kr,  
"충성대" 앱(APP)

**"학교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3사 26기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지난 10월 26일 3사 26기 졸업생들은 임관30주년을 기념하여 뜻 깊은 홈커밍 행사를 3사관학교 교정에서 개최하였다. 특별히 후배들의 축제인 충성제 기간에 임관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축제에 활기를 더하였다.

충성연병장에서 26기 양성한 동기회장이 모교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후배들의 배출을 염원하는 동기생 뜻을 모은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학교장(장달수 소장)에게 전달하여 100년을 향한 학교도약에 밑거름을 풍성히 해주었다.

**26기 학교발전기금 기부총액 5,436만원('19.11.30 기준)**



## 학교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행복했습니다

12월 1일부로 34년 군생활을 마감하는 천병규 대령(3사 22기)은 11월 27일 특별히 모교를 찾아와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천대령은 막상 전역을 맞이하며 자신의 인생에 돌아보니 3사관학교 입교 덕분에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고

전역 후 인생2막 준비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작지만 모교발전을 위해 보탬 되는 일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제2의 인생여정을 준비하는 천병규 대령 앞날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도약 100년! 학교발전기금 동참이 그 첫걸음이 됩니다"**